Bridgestone, 실리카 타이어 공급

실리카 성분으로 저온에서 탄성 유지 … 악천후에도 안전주행 가능

Bridgestone이 실리카 성분을 첨가한 사계절용 타이어를 공급한다.

Bridgestone Tire Sales Korea는 사계절용 타이어 <Insegnia SE200>을 국내시장에 선보인다고 12월17일 발표했다.

<Insegnia SE200>은 빗길이나 날씨가 추운 환경에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을 향상시킨 제품이다.

타이어에 실리카(Silica) 성분을 첨가해 저온에서도 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제동력과 핸들링 성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또한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과 물이 빠지는 표면 폭을 넓혀 빗길에서 안전적인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Bridgestone Korea 경영기획과 송진우 차장은 "<Insegnia SE200>은 혼다(Honda)와 도요타(Toyota), 시보레 (Chevrolet), GM 등 해외 명차에 채용되고 있으며 북미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며 "국내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2/17>